



노동자·정당·시민사회, “공권력 투입 중단” 한 목소리

한국옵티칼 강제 집행 중단 경찰청 기자회견 ... “정부가 외국자본에 해고당한 노동자 겁박”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자본과 법원, 경찰이 2월 16일 오전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조 사무실 접수를 위해 진입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녹색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전국민중행동은 2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강제집행 즉각 중단, 고용승계 면담 실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권력 투입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앞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본과 경찰이 대규모 공권력과 용역을 동원해 공장을 접수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가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보일 모습인가?” 라면서 “민주노총은 외투자본의 먹튀를 근절하고 정부와 경찰의 자본 비호 태도를 바로잡는 투쟁을 만들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들과 힘찬 투쟁을 조직해 일본 자본이 고용승계하

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2월 16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집결 지침을 내렸다.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니토텐코그룹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먹튀 방조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본 자본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해 끌어내겠다는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라며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외국자본의 먹튀를 보호한다고 선언한 꼴이다” 라고 꾸짖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58차 정기대의원대회

[수정] 소집 공고

금속노조 규약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 아래 -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13시
- 장소 :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 안전 (안전4. 제육 변경)
 - 안전1. 12기 2년차 사업평가(안) 및 결산보고 승인 건
 - 안전2. 13기 1년차 사업계획 및 2024년 투쟁방침 승인 건
 - 안전3. 13기 1년차 사업예산(안) 승인 건
 - 안전4. 회계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대응 투쟁 결의 건
 - 안전5.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
 - 안전6. 민주노총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기준(안) 승인 건
 - 안전7. 조합 감사위원 선출 건
 - 안전8. 결의문 채택 건

2024년 2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창열

